

세대전단-고가로 팔리는 외제 중고 의류

마피아 연계된 밀수품이 대부분, 사 입는 것도 '불법'

'리바이스 501' 등 오래된 청바지 기십만원에 판매

오래 묵을수록 비싼 청바지가 있다. 바지 끝이 닳아 너덜거리고 주머니에 때가 낀 청바지, 자켓, 티셔츠 등이 새 옷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팔리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청바지를 비롯한 의류에서부터 장신구 등 주로 미국에서 건너온 '헌' 물건들이 서울의 이태원, 압구정, 대학로, 이대 앞, 명동 등에서 지방은 부산, 대구, 울산, 마산 등에서 전문매장을 통해 젊은이들에게 팔리고 있다.

전문매장 서울에만 7,8곳
부산, 대전 등 지방에도

젊은이들이 이들 중고의류를 찾는 이유는 낡고 오래된 것, 이른바 '중고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새 옷을 일부러 찢어 입거나 세탁을 많이 해서 닳아진 듯한 느낌을 주도록 만들어서 입고 다니는 젊은이들은 몇 년 전부터 있었지만 헌 옷만을 전문으로 파는 매장이거나 그 옷을 사 입는 젊은이들이 등장한 것은 최근이다.

중고 매장에서 취급하는 헌 옷들의 가격은 보통 수만원을 호가하고 기십만원에 이르는 고가품도 있다. 아무리 유행에 민감한 젊은 세대라고 하지만 비싼 돈을 주고 그것도 미국사람들이 입던 낡은 옷을 사입는다는 것 자체가 일반 사람들에게는 좀처럼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중고의류를 선호하는 젊은이들에게 '무조건적인 미국문화에 대한 수용', '주체성 없는 맹종'이라는 부정적인 시각을 던지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다. 아무리 대중문화를 비롯해 온갖 미국 '것'들이 뒤덮고 있는 상황이지만 미국사람들이 입다 만 헌 옷까지 사 입어야 한다는 것이다. 미제는 곧 세련되고 좋은 것이라는 고정관념, 문화사대주의에 젖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들의 지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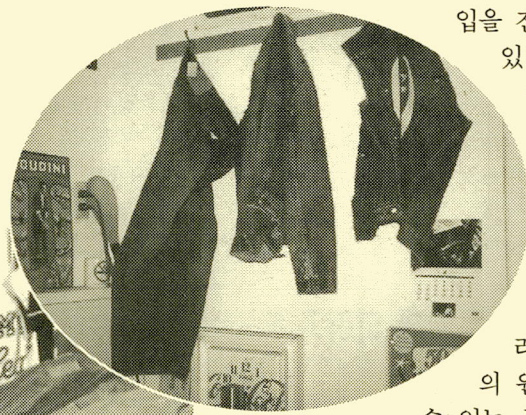
그러나 문화사대주의라는 단순논리로 이들 젊은이들을 매도할 수 만은 없다는 주장

에 진짜 멋쟁이가 아닌 일반 청소년들이 사 입을 수도 없지 만 중고의류가 어떻게 유통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여성 고객이 더 많아

중고매장을 찾는 남녀 고객 비율은 4:6 정도다. 매장을 경영하는 상인들은 사이즈가 커서 남성들이 많이 찾을 줄 알았으나 혈령한 옷을 걸쳐 입는

작했던 것. 제임스 단의 광고로 유명한 청바지다. 당시 만들어진 것은 미국 내에서도 골동품으로 취급되며 수십만원을 호가한다고 한다. 그러나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제품은 현재 미국 리바이스 회사가 생산하고 있는 501.



▲ 이 대 앞 (NYLON)에 진열된 청바지, 자켓, 매 장 주인에 의 하면 수백만 원짜리 들이 다.

중고매장을 찾는 젊은이들은 개성과 패션을 추구한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그들의 개성이 불법으로 치장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무감각하다.

도 있다. 서울 YMCA의 청소년 상담 간사인 박태범 씨는 "중고의류를 사 입는 젊은이들은 그것의 출처가 어디인지에 대해 잘 모르고 사실 관심을 갖지도 않는다. 다만 그들이 잘 보는 일본 패션잡지 논노나 국내의 잡지, 방송 등에서 중고패션이 소개되고 있고 유행에 민감하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다"며 결코 미국 것이라는 이유로 맹종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박 간사는 값이 비싸기 때문

패션이 유행이라 여성들이 더 많다고 한다. 이대 앞에 있는 중고전문매장 <NYLON>의 정현우(영업담당) 씨는 젊은 이들 중에도 중고의류를 선호하는 부류는 청바지에 대한 상식이 있는 사람이나 애정을 가지고 더 알고자 하는 이들과 실리적인 필요성으로 찾아 오는 사람들이라고 한다.

<NYLON>에서 만난 김진철(20, 대학생) 군과 엄성운(20, 대학생) 군의 경우는 1미터 90센티가 넘는 자신들의 신장에 맞는 옷을 찾기 위해 중고 매장을 찾는다고. 김군은 몸에 맞는 옷도 고를 수 있고 요즘 유행에 맞는 낡은 옷을 사입을 수 있어서 자주 온다며 "메이커나 외제를 찾아다니는 것은 촌스러운 일"이라고 말해 요즘 젊은이들의 패션제일주의 경향을 그대로 보여준다.

게스, 갭, 클라인 등
유명 브랜드 대부분

중고매장에서 취급하는 청바지는 최하 3만5천원에서 5~6만원선이지만 시판되지 오래된 것일수록 가격이 높아 골동품 대우를 받는 것도 있다. 티셔츠, 장신구, 자켓, 구두, 가방 등의 제품들과 국내에서 제작된 수출용 보세의류도 있는데 보통 3~6만원 정도다.

이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것은 '리바이스 501'이다. 리바이스 501은 미국 리바이스 회사에서 1960년 대 시판을 시

보다 5천원 정도 낮은 가격에 팔린다.

그러나 정작 문제는 유통구조에 있다. 이들 중고의류가 불법으로 유입되는 이른바 밀수품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원료로 쓰이는 것 외의 헌 의복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상공부 섬유방적과에 의하면 지난 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수출입 별도 공고>에 따라 '방모제품의 원료로 사용될

수 있는 중고의류(털스웨터 등)에 한해 대한방모공업협동조합의 허락을 받아 수입'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몇 년 전 서울 동대문 시장에서 결례용으로 들여온 의류를 일반 소비자들에게 완제품으로 팔던 상인이 적발된 적이 있다.

미국 마피아-일본-한국으로 유통

중고매장을 경영하는 사람들에게 의하면 우리나라에 미국의 중고제품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대략 1년 반 내지 2년 전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젊은세대들 중에도 중고의류 전문매장에 대해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을 보이는 이들이 많은 것을 보면 유입 시기가 그리 오래 되지 않았다는 것을 짐작케 한다.

2년 전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중고의류를 들여왔다는 정아무개(이태원 <THE SKY'S> 주인) 씨는 중고의류를 구입하는 방법은 미국 상인에게 바로 사는 방법, 일본 상인을 거쳐 사는 방법, 미국 중고시장을 직접 돌아다니는 방법 등 크게 세가지라고 한다. 정씨가 밝힌 중고의류의 유통과정은 상상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놀랍게도 정 씨는 중고의류의 유통과정에 미국 마피아까지 관련돼 있다고 밝혔다. "가장 쉬운 방법이 미국 상인이 모아 놓은 물건을 미국으로 건너가 직접 사오는 것인데 상인이 대부분 미국 내 마피아들이죠. 마피아에 연줄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물건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 마피아와 줄을 트기 위해 몇 년을 고생했다'는 정 씨는 한국 사람 중에는 자신이 유일하게 미국 마피아에게 물건을 사온다고 주장했다.

마피아 조직은 중고시장이나 개인적인 거래를 통해 청바지 등 중고 의류를 모아왔

다가 일본이나 한국 상인들에게 한꺼번에 판다는데 그들이 물건을 모으는 과정 중에는 세탁을 맡긴 물건도 포함한다고 한다.

"세탁소에서
흠친 청바지도 있다"

"비버리힐즈 등 부자 동네에서는 청바지 하나 없어진다고 신경쓰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동네의 자동 빨래방을 지키고 있다가 세탁물 주인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청바지 등을 훔쳐내기도 합니다."

첫번째 방법을 쓸 수 없는 한국 상인들은 대부분 미국 마피아로부터 물건을 산 일본 상인에게 다시 사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실제로 명동의 회현지하상가에서 <501>이라는 중고매장을 경영하는 오아무개 씨는 "미국에서 직접 물건을 구하기는 어렵고 일본 사람을 통해 사는 방법이 오히려 편하죠"라고 말해 정씨의 말이 사실임을 확인해 주었다.

세번째 방법은 직접 미국으로 가 물건을 사 모으는 것이다. 이태원의 정 씨는 첫번째 방법과 세번째 방법을 병행한다고 한다. 미국 마피아들이 터무니 없이 가격을 높여 받는 횡포를 부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아예 미국 전역을 직접 돌아 다니는 것이 싸게 먹힌다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동네 단위로 'YARD 세일'을 자주합니다. 쓰던 물건을 사고파는 중고시장이지요. 그런 시장이 미국에서 활성화돼 있고 중고제품만 파는 매장이 많이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L.A, 샌타이고, 캔터키 등에 있는 골동품 대리점이나 중고시장이 정 씨가 자주 가는 곳이다.

그밖에 아주 드문 경우이기 는 하지만 국내 미군들이 쓰던 물건을 사거나 구하는 예도 있다. 그러나 모아지는 물건들도 적고 주한 미군들이 쓰던 물건들을 일본인 수집가(군복, 군용제품)들이 일차로 쓸어가기 때문에 정작 국내 상인들의 손에 넣기는 힘들다고 한다.

관련기관 단속
강화해야

이런 과정을 거쳐 중고의류는 상인들의 표현대로라면 '벌크' (1 파운드 당 얼마씩 계산 하는 방법)로 들여오게 되는데 영수증 없이 거래 되는 것이 보통이다. 일부 상인은 물건 양이 많을 때 임의로 만든 영수증으로 입국 시 세금을 물기도 한다고 주장하지만 수입 자체가 허가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일은 없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흠친 청바지, 세금 포탈을 하는 밀수품... 멋있고 편하다는 이유로 중고의류를 단순히 패션으로 받아들이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다. <황금희 기자>

중고주의란 무엇인가

중고매장 의류를 찾는 젊은이들이 추종하고 있는 중고주의(USED) 패션은 몇 년 전 부터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패션경향으로 오래 묵은 낡은 것을 멋스럽고 세련 된 것으로 보는 경향이다. 고물, 중고, 골동품, 오래된 것 등의 뜻을 가진 앤티크 품(ANTIQU), 누더기 패션, 신 히피 품(NEO HIPPIE)으로 칭해지기도 하는 중고주의 패션은 미국 등 유럽에서 시작해 4~5년 전에는 일본의 패션 거리인 히라주쿠를 시작으로 전 일본을 휩쓸었다. 최근에는 동남아 지역에도 중고주의가 유행되고 있다고 한다.

이화여대 조규하(의류직물

학과) 교수는 "고도로 산업화된 사회에 살고 있는 요즘 사람들은 도시화, 산업화에 대해 염증을 느끼고 자연과 태고의 것에 대한 동경, 원초적이고 편안하고 익숙한 것을 원하고 있다. 새로운 유행보다는 옛날 것, 오래된 것을 찾는 사람들의 욕구가 바로 앤티크 품의 시발이 되었다"고 소개한다.

앤티크 품은 파리 컬렉션에서도 등장할 정도로 공식적으로 인정 받은 패션경향이다. 미국 내에는 중고제품만을 취급하는 매 장 (SECOND SHOP)이 많고 '랄프로렌' 같은 브랜드도 있어 옛날 소년, 소년들이 입던 스타일의 의상을 취급하고 있다고 한다.